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분석

손향미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n Analysis of Pastiche in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Hyang-Mi Shon ·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4.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cultural phenomenon in modern society from the point of view of pastich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astiche, create a framework for studying modern fashion and body ornamentation, one of the facts of cultural phenomenon and, based on these aspects, will observe the pastiche phase, which occurred in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in the late 1990's Colle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pastiche is that it transcends meaning, alters the usage of objects, raises the beauty of alienation and pursues temporariness. Observing pastiche, according to it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as it appears in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transcending meaning,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is a mixture of all past styles. Secondly, use of objects in body ornamentation of fashion has shown the use of things which have never been used in accessorizing before, such as birdcages, bones of body, castle. Third, in terms of the raising of the beauty of alienation, accessories from countries, which were not high interest groups in the past, such as piercing, scar, corpulent, are being used as high-fashion accessories in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Fourth, in terms of the pursuit of temporariness, external ornamentation in body ornamentation of modern fashion is seen as permanent changes to the outer body, such as tattoos, piercings, hair color and the more temporary changes, such as coloring.

Key words: pastiche, transcendence of meaning, use of objects, raising of the beauty of alienation, pursuit of temporariness; 혼성모방, 의미의 초월,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 일시성의 추구

I. 서 론

인간의 신체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술의 도구이며, 사회 생활속에 자신을 직접 투영시켜 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한상복 외 2인, 1985).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 및 신체장식은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속에서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고찰할 때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세계는 20세기에 들어와 제 1차·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가 도래되었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계문명의 발달은 합리성과 기능적 논리를 존중하는 모더니즘(modernism)을 더욱 뚜렷하게 정착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기에 정보화 시대, 후기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군중속에서의 고독, 소외, 아노미(anomie), 평등 등의 복잡한 문제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내포하면서 개성화되고 다양화되는

20세기 후반의 예술사조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할 수 있다(김옥동, 1992).

건축부문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분야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모더니즘의 지나친 심각함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태평함, 즐거움, 절충주의를 추구했다. 즉 규격이 타이트하고 치밀한 형식과 엄격한 미학 기준을 지니는 모더니즘 예술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양식에는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간의 경계·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와 형식간의 절충주의나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Jenkes, 1993).

제임슨(Fredric Jameson, 1998)은 문화 영역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표현 양상을 혼성모방(pastiche)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혼성모방의 정의는 패러디(parody)와 유사하게 무엇인가를 모방하는 것이지만 패러디와는 달리 비판적 웃음도 해학도 없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모방이다. 혼성모방은 친숙한 이미지의 재배열, 재구성, 그리고 재활의 표현기법으로, 이미 우리 주변에 범람하는 과거의 이미지들을 예술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친숙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새롭고 다른 예술적 생산물로 재창조된다. 즉 역사성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공간이나 사물의 개념이 와해되는 현상을 구체화한 것이 혼성모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혼성모방과 관련된 현대 패션의 경향은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하위스타일이 과거의 반 패션과는 다르게 다원화된 방식으로 보다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패션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절충의 일환으로 일반 패션에 도입된 저항적 하위문화 요소는 그 정신이 제거된 혼성모방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문신·피어싱과 같은 신체장식은 인간을 주체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영구적인 장식으로서, 이미 원시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상징적 주술의 의미를 지녔다. 이들 장식은 일부 특정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거리패션이 상향 전파되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가 와해되는 탈중심적인 현상과 더불어 과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배제된 채 모든 것이 변형 혼합되어 나타남으로써 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위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분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패션의 신체장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디자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하나의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문화현상을 혼성모방으로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혼성모방의 정의와 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현상의 하나인 신체장식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현대 패션의 혼성모방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 연구에 의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사진자료로 컬렉션 인터넷 정보 즉, 시각적 이미지인 1차 적 자료를 분석틀에 적용하여 분석·파악하였다.

분석자료는 영국 타임지("패션파워 25인", 2001), 조선일보("현재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디자이너 26인", 2002), 라사라(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2000)에서 인정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분석자료의 선정은 의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준거집단에 의해 선정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패션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firstview」로 하였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767개의 디자이너별 작품과 세계 패션에 관한 각종 자료는 물론, 4대 컬렉션의 패션쇼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혼성모방의 출현배경 및 개념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유일하고 체계적인 원칙이나 이론체계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하고 잡다한 문화현상들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현숙, 1995).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최초로 적용되었던 건축의 경우, 역사성과 절충성, 다원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이에 대해 찰스 젱크스(Jencks, 1993)는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모더니즘태도를 피하고

과거와의 연관성을 되살리던가 유지하든가 해야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복고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던 문화 양식에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및 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장르와 형식간의 절충주의나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Jencks, 1993). 오웬스는 매체들의 상충은 물론 표현과 해석의 수준들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매체라는 한계를 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지 않던 매체들도 사용되는 것이 포스트모던 미술양식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문화 양식에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및 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장르와 형식간의 절충주의나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문화영역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연구한 프레드릭 제임슨(Jameson, 1990)은 그의 논문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에서 포스트모던 문화의 외면상의 특징을 혼성모방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독창적이고 새로운 모든 스타일이 이미 시도되었거나 만들어져 있어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더 이상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고 단지 과거 스타일들의 조합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타일상의 개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창조 방법이 과거 스타일을 모방하는 혼성모방이라고 하였다.

사전적 의미의 혼성모방은 이탈리아어 ‘페스티치오(pasticcio)’에서 유래한 페스티쉬(pastiche) (Rose, 1998)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혼성모방(混成模倣)’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혼성(混成)’은 ‘서로 혼합하여 이루어짐’으로, ‘모방’은 ‘다른 것을 보고 본뜨거나 본받음, 흉내냄’으로 정의되고 있다(신기철, 신용철, 1991). 「The Dictionary of Art」에서는 혼성모방을 다른 예술 작품으로부터 스타일이나 테크닉, 모티브 등을 의식적으로 빌려온 이미지라 정의했으며, 이는 다소 연관이 없는 조합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미술용어사전(1989)에서는 예술가가 스스로 빌어온 것을 자기 자신의 통일된 양식으로 융합해내지 않은 절충적인 작품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혼성모방과 종종 비교되는 패러디(parody)의 개념은 제임슨에 의하면 기존의 작품들에 대한 유머러스한 모방, 숨은 동기가 있는 풍자적인 모방이라고 정

의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혼성모방은 어떠한 동기도 감각도 없는 중성적인 패러디라 할 수 있다. 혼성모방과 비교되는 또 다른 개념인 레트로(retro)는 버나드(Barnard, 1996)에 의하면, 레트로가 과거의 스타일을 이용하여 역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반해 혼성모방은 그러한 의미 창출이 배제된 허무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제시하면서 레트로와 구분하였다. 즉, 혼성모방은 과거와 다른 문화에서 약탈적으로 얻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은 소설이나 이해되지 않은 과거시대 그리고 다른 문화권들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와 비교개념에서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혼성모방은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 작품 또는 창작 방법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디가 어떤 목적의식(조롱이든 찬양이든)을 가진 활동인데 반해 혼성모방은 의미 없는 표면적인 스타일상의 조합일 뿐이며 과거의 스타일을 이용하면서도 레트로와 같이 역사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목적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혼성모방은 모더니즘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박탈하고 예술적 생산물로 새로움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2. 혼성모방의 표현적 특성

처음 혼성모방의 개념을 사용한 학자인 제임슨(Jameson, 1990)은 1980년대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문화현상으로 혼성모방의 개념을 들고 있으며 혼성모방을 비롯한 포스트모던의 예술적 실천이 중요한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계 허물기는 혼성모방이 무작위적으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사이를, 그리고 기존의 성, 계급, 인종, 민족문화 등으로 구분지어졌던 모든 질서정연한 기표들(signifiers) 사이의 연관성을 깨는 것을 말하여 그는 이것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안에서 기표들간의 상호지칭성(inter referentiality)이 파괴되는 기호학적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미술과 건축분야에서 혼성모방을 설명하고 있는 할 포스터(Foster, 1990)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적인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혼성모방의 사용이 스타일로부터 구체적 맥락을 박탈할 뿐 아니라 역사적 감각

또한 박탈한다고 하였다. 즉 혼성모방은 과거의 문맥이나 과거와의 연속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수많은 상징이 되었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허상의 형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혼성모방은 스타일의 해체와 역사붕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치·경제 구조변동에 따라 나타난 문화현상으로 설명하는 데이비드 하비(Harvey, 1995)는 과학기술과 정보혁명, 복제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혼성모방을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라고 하였다. 위성통신망의 발달로 의사 결정에 드는 시간과 지역적인 한계가 극복됨에 따라 생산에 있어 회전 시간, 즉 자본의 순환 시간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상응하여 교환과 소비 부분의 가속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자본가들이 물리적인 재화의 축적과 회전에 한계를 느끼고 순간적인 서비스의 공급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패션, 생산 기술, 노동 과정, 이데올로기, 가치나 기존 관행 등의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erality)이 강조되고 뒤이어 공감대 균열 및 가치 다양화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장 순간적인 유형인 이미지가 자본가의 최고 상품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이때 이미지는 시장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시뮬라크르(simulacra)로서의 이미지를 복제하고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이 되는데, 이미지의 복제가 원본과 모조품과의 차이를 없앨 뿐 아니라, 자본의 순환시간을 가속화하여 즉흥성과 순간성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시간적 지평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붕괴된 시간에 의해 공간 역시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혼성모방은 이와 같이 이미지가 상품화되면서 이미지를 복제하여 생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의 혼성모방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이를 정리하면 혼성모방은 모든 중요한 경계들이 와해되는 것으로 모든 스타일의 해체와 역사감각이 상실되며 맥락이 박탈되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혼성모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혼성모방은 스타일의 해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혼성모방은 아무 원칙 없이 과거 모든 스타일들을 조립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으로 인한 의미의 초월이 이루어진다.

둘째, 혼성모방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공간이나 사물의 개념이 와해되는 것으로 전통적 개념의 붕괴를 의미한다. 모든 질서정연한 기표들 사이의 연관성을 깨는 것이며 특정한 역사에서의 기표들간의 상호지칭성의 붕괴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물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 영역에 고유한 도구라는 한계를 넘어 여지껏 사용되어 오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모더니즘에서 지켜져 오던 장르 구분을 철폐하는 것으로 오브제를 기용(起用)하였다.

셋째, 혼성모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고급 문화와 저급문화, 성, 계급, 인종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주부(主部)의 와해 현상으로 소외미가 부상되었다.

넷째, 혼성모방은 과학기술과 정보혁명, 복제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일시성을 추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혼성모방의 특성을 '의미의 초월',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 '일시성의 추구'의 4가지로 보고 이를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혼성모방의 개념과 특성, 그 의미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III. 현대패션의 신체장식에 나타난 혼성모방

종전의 신체장식의 형태는 신체에 직접 행하는 영

<표 1> 혼성모방의 개념과 특성 및 그 의미

혼성모방의 개념	혼성모방의 특성	혼성모방의 의미
시·공간의 압축	의미의 초월	무작위적으로 과거의 모든 스타일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정반대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장식으로 조합하는 것
	오브제의 기용	그 동안 장식으로 사용되지 않던 대상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장식도구로 사용되는 것
	소외미의 부상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소외되었던 소수민족, 여성 등의 비주류문화 혹은 하위문화의 장식 요소를 사용하는 것
	일시성의 추구	신체에 직접 행해지던 신체상의 장식으로 영구적 변형에 의해 가능하던 장식들이 입고 벗을 수 있는 외부 장식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

구적인 변형인 문신, 상흔, 변형 등의 신체상 장식과 채색, 의복, 장신구 등의 착탈이 가능한 외부장식, 그리고 헤어드레싱과 같은 신체상 장식 요소와 외부장식 요소가 존재하는 2차원적 장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장식은 습관적 행위, 장식, 성적 매력, 성인이 되는 의식, 용기시험, 결혼의 표시, 전시효과, 예술적 가치, 종교적 상징물, 계급, 신분 및 지위의 표시, 특정 종족이나 집단 구성원의 상징적 표시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즉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식은 각 문화의 맥락에 따라 각각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체장식은 영구적 신체 장식인 문신 대신에 일시적 외부장식인 일회용 문신 등을 사용함으로써 장식 분류 기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의미가 박탈된 하위문화의 신체장식 요소들이 하이패션의 장식 요소로 사용되는 상향전파 현상이 보이며, 여러 가지 장식 요소들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되는 다민족적, 다인종적 혼혈 문화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체장식은 동기, 형태, 방법, 의미의 모든 면이 변형 혼합된 혼성모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혼성모방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중심으로 혼성모방의 특성, 즉 의미의 초월,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 일시성의 추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대 패션을 선도하는 대표 디자이너의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혼성모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의미의 초월

의미의 초월은 일정한 주제로 이끄는 장식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수많은 부분들의 가능세계들이 하나의 불가능한 공간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분법적인 과거와 현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동양과 서양 등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성의 혼합과 같이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되면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일관된 의미나 해석을 할 수 없는 의미를 초월하는 결과를 만든다.

1997년 S/S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iano)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의 장식에 있어 자

유여신상의 첨단형태의 머리장식과 영구적 신체 변형인 허리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장식 모양은 첨단 형태의 머리장식으로, 원래 자유 여신상은 자유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드림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 여신상의 머리에 씌워진 관의 7개의 첨단은 세계 7개 주의 자유가 널리 퍼져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자유여신상, <http://yenungam.ac.kr>). 또한 허리는 인간에게 있어 강력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로, 허리의 신체변형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상징하고 있었다(오희선, 2000). 그러나 1997년 S/S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여신상의 첨단과 구속의 상징인 허리의 변형을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하였다.

2000년 F/W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은 Fig. 2에서와 같이 머리장식으로 교황 투구형태의 검정색 투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에 있어서는 창백할 정도의 흰 얼굴에 검은 눈썹과 인조 속눈썹, 검정색 아이라인에 붉은 입술화장으로 치장하고 있으며, 동물들을 잡아매는 목줄과 같은 장식이 보여지고 있다. 신체의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 수직적인 장식은 힘과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으며(Storm, 1987) 이와 같은 교황의 투구는 교황의 위엄과 존엄함을 상징하고 있다. 희고 붉은 얼굴화장, 짙은 눈썹, 검은 아이라이너, 인조눈썹, 그리고 붉은 색 립스틱은 사창가의 여성을 상징한다(오희선, 2000). 또한 목줄은 애완동물에 대한 구속과 함께 동물에 대한 학대의 의미를 가진다. 디올은 이러한 이질적인 의미와 성향을 가진 것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즉 수직방향의 장식으로 존엄함의 상징 기표인 교황의 투구와 사창가의 전박한 성향의 여인 화장, 그리고 구속과 학대의 의미를 가진 목줄을 하나의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Fig. 3은 2001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존 갈리아노의 작품이다. 여기서는 외부장식으로 머리장식인 황금색의 관과 운동 선수들의 복장에서 특징들을 신체상의 바디페인팅과 외부장식으로 혼성모방하여 사용하였다. 머리의 장식에 있어 후광과 같은 황금색의 관이 보이고, 상반신에는 부분적 바디 페인팅으로, 그 위에 다시 구기 종목 선수들의 가슴과 등에서 보이는 숫자 4의 레터링이 보이며, 왼쪽 가슴엔 선원들의 문신형태의 일회용 문신의 사용이 보인다. 또한 외부장식은 권투선수의 장식으로 주먹엔 붓대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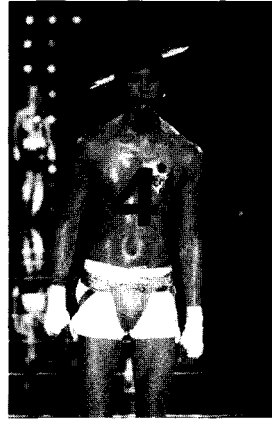


Fig. 1. John Galiano, 1997, S/S, 「firstview」.

Fig. 2. Christian Dior, 2000, F/W, 「firstview」.

Fig. 3. John Galiano, 2001, S/S, 「firstview」.

Fig. 4. Christian Dior 2001, S/S, 「firstview」.

복부에는 백색의 트렁크 팬츠 위에 노 파울 컵(no foul cup)의 형태의 외부 장식이 보인다. 후광은 불교 및 기독교 성지 벽화 및 종교와 관계되는 많은 그림에서 성자, 사도 그리고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들의 배후에 묘사되는 것이다. 또한 복식문화자료에서 접할 수 있는 후광이 묘사된 인물화의 생활문화는 사상적으로 종교적 의미가 많고, 자연숭배, 우주 천체의 숭배정신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빛이 인간의 어두운 시야를 밝혀주듯이 지혜와 성령의 빛을 상징한 것이었다(신영선, 1998). 이것은 후광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신(God)을 그릴 때 대부분 머리주위에 후광을 그렸고, 고대 왕들은 신과 동일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후광을 자기머리에 붙이는 것을 생각해 냈다. 그것이 바로 보석, 깃털, 금으로 만든 관이다(오희선, 2000). 황금관은 신과 같은 존재 또는 인격의 상징이고, 황제의 사신이라는 자격의 표상이었다.

한편 19세기에 문신은 범죄자의 낙인목적으로 사용되었고, 20세기에는 노상강도나 오토바이 갱들이 문신을 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권력을 갖는 소외된 그룹들은 문신을 사용하거나 신체투쟁을 의미하는 다양한 형식의 표현을 취했다. 남성들에 의해 상품화되고 성적 대상으로 천시받던 여성과, 변태적인 존재들로 간주되던 동성연애자들도 정상적인 성이라고 받아들여길 바라는 레즈비언이나 게이 해방자들의 신체에 상징으로 문신을 하는 등 신체예술의 형태들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신은 소외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였으며, 문

신은 말로서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적당한 수단이다.

가슴의 번호는 구기(球技, ball games)종목 중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 치루어지는 배구, 농구, 축구, 럭비, 야구 등과 같이 팀마다 통일된 복장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구별을 위하여 가슴과 등에 번호를 사용한다(구기, <http://www.encyber.com>). 이에 반해, 개인 경기의 대표적인 복싱(boxing, 권투)은 2명의 선수가 글러브를 양손에 끼고 링 안에서 서로 치고 받는 스포츠이다. 러닝셔츠를 입어야 하는 아마추어와 달리 프로선수의 복장은 스파크가 없는 유연한 신발을 신고, 순백색을 제외한 넓적다리 반쯤까지 닿는 트렁크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하복부 보호를 위해 반드시 노 파울 컵(no foul cup)을 착용한다. 주먹을 감는 봉대는 부드러운 형질을 쓰고 접착성 테이프로 안정시켜서 사용한다(복싱, <http://www.encyber.com>).

이와 같이 존 갈리아노는 신과 같은 인격의 상징기표인 황금관과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신, 그리고 주먹봉대와 하복부의 노 파울 컵, 트렁크 팬츠 등의 개인경기의 대표적인 복싱의 상징기표들과 단체경기의 상징기표인 가슴번호를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하였다.

2001년 S/S 컬렉션에서의 다음의 작품은 백인 모델을 흑갈색의 피부 화장으로 전신을 표현하고, 가슴의 노출과 어깨에는 자주색의 염색된 모피裘을 들렀으며, 미식축구의 헬멧과 야구배트를 외부장식으로 수용하고 있다(Fig. 4). 모피는 또 동물의 자성(磁性)과 육정

을 암시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재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음모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에로틱한 소재중의 하나이다(오희선, 2000). 검은 색의 피부를 가진 흑인은 영혼과 육체, 선과 악, 천상과 지상 등의 구분에 기초하여 악함과 추함을 상징한다고 하였다(Frnantz, 1978). 또한 서구인의 집단 무의식에서 검은 색은 악, 피, 빈곤, 죽음, 전쟁, 기아를 표상하며, 흰색은 순결과 광명, 평화, 희망을 상징한다. 가슴은 여성의 성과 힘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심벌 중 하나이다. 가슴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아기를 위한 생명력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신비스러움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노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모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모태로의 동경은 우리생명의 근원지에 대한 동경인 것이다. 또한 나체는 그것이 허용되었던 문명사회 이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슴의 노출은 풍요로운 모태를 상징한다(박길순, 2000). 야구의 배트는 투구자에 의해 날아오는 공을 타자가 치는 도구이다(야구, <http://www.encyber.com>). 야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 베이스볼형에 해당한다. 한편 미식축구는 구기종목 중에서 볼형에 해당하며, 과학성, 합리성, 융합성을 바탕으로 미국 사람이 계산적으로 만든 스포츠로서, 공격과 방어가 나뉘어 있으므로 유연성의 기회가 없는 경기이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매우 위험하므로, 헬멧을 비롯하여 솔더패드, 히프패드, 사이가드, 니패드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미식축구, <http://www.encyber.com>). 이와 같이 다음은 미식축구의 상징 기표인 헬멧과 야구의 상징 기표인 배트, 노예와 추함 악함의 상징기표인 흑인의 피부색, 풍요를 상징하는 가슴의 노출, 그리고 음모의 상징기표인 모피를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의 신체장식에 나타난 흥성모방은 모든 것이 무작위적으로 혼합되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반대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장식으로 조합됨으로써 일관된 의미나 해석을 할 수 없는 의미의 초월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향과 의미를 지닌 모든 것들이 수용된 의미의 초월은 그 동안 이분법적인 경계가 와해되는 포스트모던적 문화현상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2. 오브제의 기용

오브제의 기용은 기성 제품 등을 사용하여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것으로, 사물의 본래 용도(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용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부적합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즉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과 관련해 부적합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지방시(Givenchy)는 1997년 F/W 컬렉션에서 Fig. 5에서와 같이 머리위에 얼굴이 가려진 방충망의 효과를 가진 것 같은 장식과 수직방향의 새장의 형태를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새장의 본래 용도, 즉 새를 기르는 장에서 벗어나 헤어 장식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인간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존재를 성립시키는 오브제의 기용이 된다. 새장이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본래 새장의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불합리하게 표현되었다. 새장의 형태 즉, 새장의 입구가 생략되었고, 인체의 머리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과 같이 부적합하게 결합되었다. 같은 시즌에서 그는 척추와 늑골의 형태를 외부장식으로 사용하는 오브제의 기용을 보여주고 있다.

척추(脊椎, vertebra)는 척추동물의 척주를 형성하는 뼈로써, 직립보행의 자세를 가지는 인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척추, <http://www.encyber.com>). 또한 늑골(肋骨, rib)은 흉추와 흉골을 결합하여 흉곽을 만드는 활 모양의 뼈로, 척추와 늑골은 골격이 가지는 역할과 같이 내장의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늑골, <http://www.encyber.com>). 1998년 S/S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맥킨의 작품 Fig. 6은 척추와 늑골이 패션의 장식의 일부로 기용됨으로써 척추와 늑골이 가진 해부학적인 기능과 내용이 부정되었다. 또한 패션의 장식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본래 크기보다 크고 늑골의 위치의 변경되었으며, 본래의 존재했던 위치에서 이탈되었다.

알렉산더 맥킨의 2001년 S/S 컬렉션에서는 성(城堡, castle)을 외부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다(Fig. 7). 궁전(宮殿, palace)은 왕후들이 사는 대규모의 호화로운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왕실의 권위나 나라의 체모를 위하여 당대 지식인들의 참여로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상이 투영된 역사적 가치를 띠게 된다(궁전, <http://www.encyber.com>). 또한 유럽에서는 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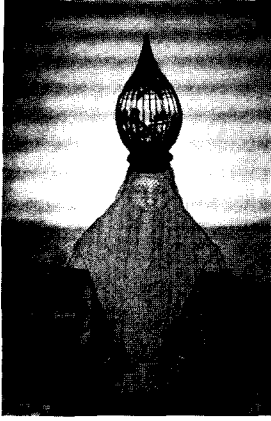


Fig. 5. Givenchy 1997, F/W,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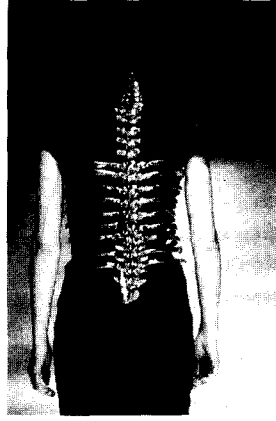


Fig. 6. AlexanderMcQueen 1998, S/S, 「firstview」.



Fig. 7. AlexanderMcQueen 2001, S/S, 「firstview」.

상 왕이나 영주가 그 영토안에 구축한 요새를 가리키어 '성(城, castle)'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당당한 대저택이나 시골에 있는 귀족, 부호의 저택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성, <http://www.encyber.com>). Fig. 7에서는 이러한 성을 어깨 위에 장식매체로 사용함으로써 성이 가진 호화로운 주택으로써의 본래 기능과 권위와 체모 등의 내용을 부정하였다. 또한 장식적으로 오브제의 기용됨으로써 본래 성의 크기와 재료 등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의 장식은 이전에는 장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도구들을 혼성모방하여 고정관념에서 이탈되어 충격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탈장르의 성향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배열의 부적합, 부조화, 무절제, 무질서, 몰형식 등으로 표현됨으로써,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장식의 장르를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소외미의 부상

소외미의 부상은 과거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민족, 여성, 아이들, 하위문화와 같은 억압된 것들의 양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여 서구 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알렉산더 맥퀸은 2000년 F/W 컬렉션에서 코 피어싱을 사용하였다(Fig. 8). 코 장식은 에스키모인 북남 아메리카 인디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아랍인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원주민에게서 보여진

다. 코 피어싱은 물체가 지나갈 수 있는 코드 조각으로 묶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코를 찌는 것은 장식뿐 아니라 타인의 나쁜 냄새를 맡는 것을 막아주거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Storm, 1987).

2000년 S/S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자신의 머리 모양을 드레드락(dreadlocks)으로 치장하고 있다(Fig. 9). 드레드락은 태생적으로 곱슬곱슬한 흑인들의 머리가 일부러 땅지 않아도 몇 무더기로 꼬여 뭉친 스타일이다. 라스타파리(rastaafari)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메이카 흑인인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ism)의 대표적인 스타일으로써, 노예로 팔려온 자메이카 흑인들의 백인 고유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전복의 상징이다. 머리는 신과의 서약으로 드레드락을 하면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http://joins.com>). 즉 드레드락은 라스타파리안 스타일로서 서인도 제도 사회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물질적인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염원과 그들의 정당한 분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 갈리아노는 흑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드레드락을 자신의 신체 일부분의 장식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였다.

상처는 여러 가지 둔성외력(鈍性外力)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것으로, 충돌이나 추락 등에 의해 생긴다. 피부 밑의 피하조직·피하근막(皮下筋膜)·근육 등의 조직에 널리 좌상(挫傷)을 일으킨다. 환부에는 종창(腫脹)·두통·피하출혈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에게는 남성의 성년식의 행사로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어린 아기의 이유(離乳)를 끝낸 뒤 분만 후의 격리로부터 돌아왔다는



Fig. 8. Alexander McQueen 2000, F/W,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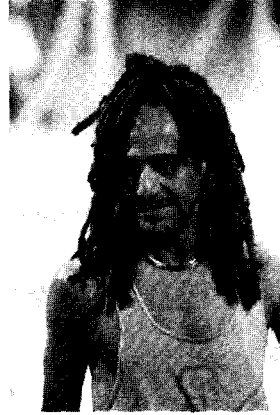


Fig. 9. John Galiano 2000, S/S, 「firstview」.



Fig. 10. Christian Dior 2001, F/W, 「firstview」.



Fig. 11. Red Or Dead 1999, F/W, 「firstview」.

것을 표시하는 많은 상처자국들이 덧붙여지기도 한다(Ebin, 1988). 크리스찬 디올은 2001년 F/W 컬렉션에서 상처자국을 장식요소로 사용하고 있다<Fig. 10>. 서구 사회에서의 상처는 고통과 사고에 의한, 또는 부주의에 따른 후유증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소였다. 이와 같은 상처는 과거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소수 원주민의 의식 요소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신체를 장식하던 장식 요소였다. 이와 같은 상처자국을 사용함으로써 무가치하던 원주민의 성년의식에 사용되던 상처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획일적 미의 기준에 위배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F/W 컬렉션에서 레드 오어 데드(Red Or Dead)는 유두 피어싱과 배에 붉은색의 “UniQue”의 글씨를 페인팅한 비만의 남자모델을 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다<Fig. 11>. 모든 사회는 육체적 매력에 대해 각기 고유의 개념 미에 대한 독자적인 관념을 갖는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뚱뚱한 정도로 평가한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여성들은, 살찌는 집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게걸스럽게 먹는다. 그녀가 그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는 아름답게 여겨져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소녀들은 날씬해야 한다고 고무하며, 몸무게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중조절은 필수적이며, 미에 대한 아프리카의 예는 미국인에겐 이상한 것이다(Horn & Gurel, 1995). 이처럼 레드 오어 데드는 과거의 서구중심의 획일적 미의식에 따라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비만의 모델을 하이패션 컬렉션에 모델로 등용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의 장식은 소수민족이나 문화에서 추구되어 오던 미의 기준이 서구 사회의 미로 새롭게 부상되었다. 즉, 신체 일부분의 변형,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인들의 장식요소와 서양에 의해 하위문화 취급을 받아오던 동양의 장식요소들은 서구의 패션 리더들에 의해 새로운 미로 채택됨으로써 소외되었던 장식요소들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외미의 부상은 서구 중심의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위배된 탈중심적 사고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일시성의 추구

일시성의 추구는 과학기술 정보혁명, 복제기술의 발달 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전자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상품화가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고유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던 것이 이미지 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른 일시성의 추구를 말하는 것이다.

1997년 S/S 컬렉션에서 장 폴 고티에는 신체 자체의 영구적 변형인 상흔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으로 일시성을 추구하고 있다<Fig. 12>. 영구적 변형의 형태인 상흔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문신의 대응물이다. 이런 장식 형태는 면도칼이나 나이프로 피부를 자르는 것을 포함한 영구적인 신체 장식 과정이다. 이것이 관습인 문화에서 상흔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행동이며, 또한 이는 미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또한 흉터의 패턴은 성년의 상징이나 출산의 특별한 목적이나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Storm,



Fig. 12. Jean Paul Gaultier
1997, S/S,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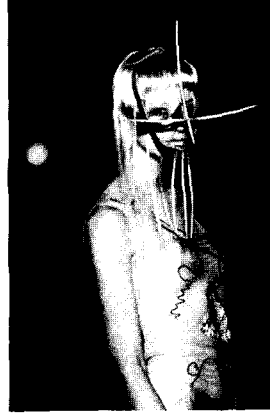


Fig. 13. Alexander McQueen
1997, S/S, 「firstview」.



Fig. 14. Christian Dior 2001,
F/W, 「firstview」.

1987). Fig. 12는 영구적 변형인 상흔 대신에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으로 사용되어 일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장식에서의 일시성의 추구는 그 동안 신체 자체의 신체상 장식으로 영구적 변형에 의해 가능하던 장식들이 입고 벗을 수 있는, 착탈 가능한 외부 장식인 일시적 변형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구적 변형의 미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영구적 변형의 장식에 대한 부정적 측면들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일부 계층에서 이루어지던 영구적 변형의 장식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한 것이다. 즉 장식의 일시성이 추구됨으로써 영구적 신체장식의 이미지가 반영구적으로 표현되어 장식의 일반화,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Fig. 13에서는 직접적으로 행해지던 영구적 변형인 코와 입술피어싱을 가죽벨트를 사용하여 착탈 가능한 일시적인 외부장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용은 신체 자체를 변경하는 신체상의 장식과 외부장식, 두 가지 측면의 요소와 원리를 수반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영구적인 요소와 일시적인 요소를 포함한 머리 장식에도 일시성 보여지고 있다. 즉 신체상의 장식인 염색은 염색된 가발의 사용으로 착탈이 가능한 외부 장식으로 사용한다. 2001년 F/W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도 빨간색의 부분 가발을 사용하였다<Fig. 14>.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의 신체장식은 신체 자체에 직접 행했던 영구적인 변형에 의해 가능하던 장식들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외부장식인 일시적인 변형으로 전

환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시성의 추구는 영구적 변형에 의해 가능하던 장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일부계층에서 이루어지던 영구적 변형의 장식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한 각 고유성을 추구하던 것들이 반복성과 복제가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장식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IV. 결 론

현대는 모든 영역에서 경계가 해체되고 구분이 모호해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잘 반영된 개념 중의 하나가 혼성모방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문화현상을 혼성모방으로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혼성모방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현상의 하나인 신체장식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에 나타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성모방의 특성으로는 의미의 초월,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 일시성의 추구 등 4가지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혼성모방의 정의와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의 초월에 있어서 신체장식은 과거의 모든 스타일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즉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향과 의미를 지닌 것들이 하나

의 장식으로 수용되면서 그것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초월함으로써 의미의 초월을 나타냈다. 의미의 초월은 정반대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신체장식으로 조합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그 동안 이분법적인 경계가 붕괴되는 경계의 와해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오브제의 기용에 있어서 컬렉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은 과거에 장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새장, 인체의 골격, 대저택의 성 등이 오브제로 사용되었다. 즉 오브제의 기용은 그 동안 장식의 범주에 새로운 장식 요소가 사용되어 신체장식의 장르가 확장되었다.

셋째, 소외미의 부상의 경우 컬렉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은 서구사회에서의 불구라고 여겨지던 코 피어싱, 상처의 자국, 살전 체형등이 장식요소로 사용되었다. 즉 소외미의 부상은 그 동안의 서구 중심적인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위배된 탈중심적 사고를 제시하면서 미의식이 전환되었다.

넷째, 일시성의 추구에 있어서 컬렉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은 신체자체의 영구적 변형인 문신, 피어싱, 머리카락의 변형 등이 입고 벗을 수 있는 외부장식인 일시적 변형으로 전환되어 표현되고 있다. 즉 일시성의 추구는 신체에 직접 행하는 영구적 변형의 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영구적 변형의 장식에 대한 부정적 측면들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일부계층에서 이루어지던 영구적 변형의 장식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하였다. 또한 장식에서의 일시성의 추구는 장식의 일반화와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상으로 컬렉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은 혼성모방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장식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결합과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로 패션의 장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새로운 조형물을 탄생시켰으며 대중문화, 상업주의 문화인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옥동. (1990). *포스트모더니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옥동. (1992).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서울: 민음사.

라사라. (2000). *세계의 디자이너*,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박길순. (2000). *재미있는 패션의 세계*.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신기철, 신용철. (1991).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신영선. (1998). *문화인류학에서 찾아본 복식의 정신문화*. 서울: 교문사.
 양학미. (1998).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희선. (2000).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월간미술. (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정현숙. (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패션 파워 25인. (2001, 8. 13). *Time*. p.52
 한상복, 이문용, 김광익. (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디자이너 26인. (2002, 3). *조선일보*.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Ebin, V. (1988). *신체장식*. 입속자 역. 서울: 경춘사.
 Frantz, F. (1978).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김남주 역. 서울: 청사출판사.
 Harvey, D. (1995).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박영민 역. 서울: 한울.
 Horn, M. J., & Gurel, L. M. (1995).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2인 역. 서울: 까치.
<http://nwk.joins.com/200110/4999/nw499025html>
<http://www.encyber.com>
<http://www.firstview.com>
<http://ynucc.yeungnam.ac.kr>
 Jameson, F. (1998).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 강현두 편. 서울: 나남.
 Jameson, F. (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김옥동 편저. 서울: 문학과 지성사.
 Jencks, C. (1993). *포스트모던 문화*. 김성근, 정정호 공역. 서울: 한신문화사.
Oxford English Dictionary. 7, 531.
 Storm, P. (1987). *Func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Turner, J., *The Dictionary of Art*. 7.